

# 광주시, 1천억원 규모 인공지능 투자펀드 조성

1048억원 AI투자펀드 업무협약 체결

총 결성 예정금액 20%

광주 소재·이전 AI기업에 투자

지역 내 우수 AI 창업기업

발굴·성장 견인차 역할 기대

광주시가 1000억원대 인공지능(AI)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업에 나선다.

광주시는 3일 오후 상무지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펀드 운용사와 함께 '인공지능 투자펀드' 광주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공지능 투자펀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광주테크노파크가 100억원을 공동 출자하고, 지난 7월 초 ㈜디엔인베스트먼트·COLOPL NEXT와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가 각각 운용사로 선정돼 총 1048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인공지능 투자펀드는 내년까지 총 결성 예정 금액의 20%인 200억원 이상을 광주지역 소재기업 또는 1년 이내 광주로 분사, 연구소, 공장을 이전하는 AI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우수한 AI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가운데)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펀드 운용사와 함께 '인공지능 투자펀드' 광주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광주시-광주테크노파크-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펀드 운용사 간 광주기업 투자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이 담겼으며, 수도권 AI기업의 광주지역 유치를 비롯한 광주의 AI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컨설팅 지원, AI 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식에 이어 4일까지 열리는 투자유치 설명회(IR)는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펀드 운용 투자심사역(VC) 3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21개사의 발표와 기업-VC간 일대일 개별상담이 진행된다.

시는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를 시작으로 매월 초 지속적으로 VC와 인공지능 기업이 만날 수 있는 월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AI 불모지였던 광주에 AI 기업의 생태계가 점차 갖춰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며 "이번 AI투자펀드 조성으로 창업초기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인 투자금 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발기인 대회  
전남도·순천시, 성공개최 다짐

전남도와 순천시는 3일 세계적인 정원축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설립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이날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발기인대회에는 허석 순천시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을 비롯 도의원 등 지역 대표자 1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대회를 통해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설립취지문과 정관, 사업계획, 임원 구성, 창립총회 개최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와 행사 운영을 전담할 기구로, 방문객 800만명 달성을 이끌어 전남도·순천시의 동북아 정원산업 중심지 도약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생태 관광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원박람회는 올해 1월 전남도와 순천시의 공동개최 업무협약 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며,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원예생산지협회(AIPH) 총회의 개최 승인에 이어 7월 정부 국제행사 승인까지 얻어 국민들의 정원박람회 개최 염원을 실현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7월(순천)과 10월(전남도) 각각 제정해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에는 조직위 주요 역할과 직원 파견, 수익사업 등 정원박람회와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권 전역에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시·도통합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시·도 갈등 현안 방향성 제시  
공감대 형성·준중·배려 강조

지난 2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감대 형성, 상호 존중과 배려를 강조했다. 통합 논의만이 아니라 갈등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11월 중 정례회를 통해 "시도통합과 관련,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회와 두 번의 실패를 경험 삼아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얻어 낸 결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시도통합을 통해 양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으로 발전되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첫째고, 다음으로 통합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도록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진 지방자치가 되도록 통합과정에서 이뤄져야 하고 실용적인 실사구시로 접근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속

적인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시도통합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초광역권 사업부터 발굴하고 시도가 협력해 함께 뛰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경제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 최종적으로 행정통합까지 이를 수 있는 단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뉴딜과 관련해 "실제로 한국판 뉴딜로는 지역이 소외된 중앙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한 것은 맞다"며 "이미 전남은 지역균형 뉴딜추진단을 구성해 최근 27건에 1조 4000억 규모의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공공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갖춰 블루이코노미 핵심사업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당부했다.

또 "그동안 도정 현안으로 대두된 한전공대와 10.19사건, 인구소멸지역특별법 등은 미래 전남을 밝힐 중요한 법안들이다"며 "이번 정기국회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정부·국회 조속 제정 촉구  
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3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신정훈 국회의원을 대표로 51명의 여·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된 법안에는 한국에너지공대를 과기특성대학처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대,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설립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에너지 신산업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반드시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서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

## '올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 전남 7곳 선정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0 가을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전남지역의 7개 관광지가 선정됐다. '2020 가을비대면 관광지 100선'은 코로나 19 시대에 맞는 다양한 대안 여행지를 발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한 여행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선정된 전남의 관광지는 ▲목포 고하도 해상테마파크 ▲나주 은행나무 수목원 ▲곡성대항강 자연휴식공원 ▲구례 지리산 호수공원 ▲화순 만연산 오감연결길 ▲해남 화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영광 물무산 행복숲 등으로 가을에 찾기 좋은 아름다운 장소들이다. 각 여행지들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관광공사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전남도는 코로나19 시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숨겨진 관광지, 개방된 관광지 등을 다양한 테마로 홍보하며 침체된 관광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의 섬과 바다를 잇는 연도·

- 목포 고하도 해상테마파크
- 나주 은행나무 수목원
- 곡성 대항강 자연휴식공원
- 구례 지리산 호수공원
- 화순 만연산 오감연결길
- 해남 화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 영광 물무산 행복숲

연륙교를 자동차로 여행하는 '남도 힐링브릿지 여행' ▲'윗, 우리끼리만 살짝'이란 테마로 남몰래 전남의 가을명소를 여행하는 '2020남도 가을여행' ▲코로나19 시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남의 숨겨진 명소를 여행하는 '슬기로운 전남내투어' 등이 있다. 이곳들에 대한 정보는 전남도관광포털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료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